

# “노짱님 보고드립니다”…鄭, 檢개혁법 처리 후 盧묘역으로

“검찰청 역사 속으로, 걱정 없이 쉬시라”  
‘盧 논두렁시계’ 보도 재생…“언론 흥기”  
닷새 만에 경남 찾아 김경수 측면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대통령님께 보고드립니다. 검찰청은 폐지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벌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이틀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 중 한 대목인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지 않겠는가’를 언급한 뒤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들 ‘싸리비’ 정청래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당 대표가 됐”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고 운을 폈다.

그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한다. 대통령님, 늘 죄송했고 늘 감사했다”며 “조금 전 묘역을 찾아 인사를 올릴 때 흘려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걱정 없이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걸어들어 검찰개혁의 역사다. 노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정 조사를 통해 낱알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방송 보도를 회의 말미에 재생한 뒤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니다. 몰염치하고 사악한 언론

도 흥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다”며 “그 대표적이게 SBS ‘논두렁 시계’ 보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BS는 이후 그 보도에 대해 사과한 적 있다. 여기 SBS와 있다. 대담 좀 해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연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

였다.

그는 SBS를 제차 거명하며 “당신들도 언론인가. 참 생각할수록 열받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고위에 앞서 진행된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전 지사 등도 함께했다.

현화와 분향을 한 정 대표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다.

권 여사는 정 대표에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수고 많았다. 큰 고비를 넘겼다. 자꾸 눈물이 나네요”라며 “(정청래) 대표님을 안아보고 싶다. 좀 몽클하네요”라고 말했다고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중수청·공소청벌을 통과시킨 직후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검찰개혁이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검찰 수사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당의 염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의미를 재차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정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으로 이동해 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등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8일 경남 하동·진주 방문 이후 닷새 만에 다시 경남 곳곳을 돌며 바둑 민심을 다지고, 경남지사 선거에 힘을 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서삼석 “해양수산 민생 정책 시급히 이행해야”

황중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면세유 최고가 적용 등 현안 질의

‘여객선 공영제’ 세밀한 대책 요구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대책 수립도 요청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역대 정권의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 진행된 황중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제 적용 및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를 비롯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가 가격상한제와 보조금 제도가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면세유는 제외돼 있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고가격제 등 대책을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추경 등 예산 지원을 통해 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올해 재정 당국과의 협의 끝에 공영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이행 준비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2027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며 “황중우 후보자가 여객선 공영제의 마중표를 찍는 해수부 장관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민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직불금 개선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라고 했지만 정작 섬 지역 어민들은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담당하는 섬 주민의 공익기능 보합과 소득 지원을 위해 먼 섬 지역의 경우 직불금 중복 지급을 허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지이양직불제는 만 8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같은 취지인 수산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 연령이 만 70세로 돼 있어 동일하게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호한 승선 기준 탓에 매년 지급 인원이 미달되는 어선원 직불금도 개편해 어선원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원 소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노후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목표로 시행 중인 산지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실행 의지도 확인했다.

서 의원은 “사업 종료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공사가 완료된 위판장은 지금까지 단 1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재적소 원칙에 발맞춘 수협 등 수산 기관의 전담 이전과 해수부 수산 전담 2차 관계 신설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김진수기자

## 안도걸 “중동발 위기, 추경 선제 대응 필요”

박흥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23일 열린 박흥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동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은 1.9~2.1%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충격으로 최대 0.5%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한국은행의 모델에 의하면 2.5조원 규모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25%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재정만으로 성장 둔화를 모두 보완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2조원은 과도한 규모가 아니라 필요 최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제한된 재원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다”며 ▲석유류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손실보전 ▲AI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위축되며 심화되고 있는 청년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경험 확대 및 직업 역량 강화 지원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흥근 장관 후보자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년 고용 지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진수기자

김문수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23일 ‘학원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이번호  
220603-중-139779